

# 한국어 재귀사 교육을 위한 문법 내용 연구

—‘자기’를 중심으로—

오 경 속

## Abstract

**Oh Kyoungsook.** 2016. 12. 31. **Grammatical Content for Teaching Korean Reflexives: Focusing on *Jagi*.** *Bilingual Research* 65, 131-152. This paper seeks to provide the grammatical content needed to teach the Korean reflexive *jagi* by combining an analysis of learners' errors with research findings in the fields of Korean linguistics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analysis of learners' errors suggests that grammar instruction should cover the following points: (1) restrictions on the person of the antecedent, (2) the honorific form of *jagi*, (3) the distance between *jagi* and the antecedent, (4) the distribution of *jagi* in the sentence, (5) the difference between *jagi* and personal pronouns, and (6) potentially confusing aspects of indirect speech. These six points are then sorted into the grammatical content needed to teach *jagi*, which is divided into meaning and usage, construction information, restrictions, intensive/supplemental information, and similar grammar. The objective of this is to provide instructors with material for teaching *jagi* that they can easily adapt to the sequence of grammar that is being taught in the classroom. (Sogang University)

**【Key words】** reflexives(재귀사), grammar description(문법 기술), antecedent(선행사), meaning and usage(의미와 용법), construction information(결합 정보), restrictions(제약), intensive/supplemental information(심화·부가 정보)

## 1. 들어가기

이 논문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내용학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어 재귀사의 문법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재귀사(再歸辭, reflexives)는 고정적인 지시물(指示物, referent)을 가지지 못하고 맥락에 의존하여 지시를 확보하는 언어 형식의 한 유형이다.<sup>1)</sup> ‘재귀사’라는 용어는 선행사가 지시하는 것을 다시 가리키는 형식들을 두루 일컫는 말로, 어떤 형식이 재귀사에 해당하는지부터 의견이 분분하다. 가장 기본적인 형식으로 꼽히는 것이 ‘자기’(흔히, 卑稱으로 ‘저’가 있고 尊稱으로 ‘당신’이 있다고 기술된다.)이고 ‘자신’도 많이 꼽히며, 심지어 논의에 따라서는 ‘나 자신’, ‘너 자신’, ‘그 자신’, ‘자기 자신’ 및 ‘본인’ 등도 재귀사로 간주되기도 한다.<sup>2)</sup> 거론되는 형식들 가운데에는 단어인 것도 있고 단어가 아닌 구도 포함되어 있으며 단어인 것은 그 품사가 명사인 지 대명사인지조차 분명하지 않다.<sup>3)</sup> 이렇게 재귀사는 목록 작성부터 쉽지 않으나 이 논문의 목적이 재귀사 자체보다는 교육을 위한 내용 연구에 있으므로 대표적인 재귀사인 ‘자기’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자기’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휘 범주에 속한다. 그런데 이들 단어는 ‘책’이나 ‘거울’과 같은 어휘들과는 달리 그 의미만 알려주어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정확하게 사용하기가 어렵다. 학습자의 모국어로 직역하여 가르쳐도 마찬가지이다. 영어의 ‘oneself’나 일본어의 ‘自己, 自分’, 중국어의

1) 이러한 성격을 갖는 언어 형식은 재귀사 이외에도 ‘지시어+명사’ 구성(‘그 사람’, ‘이 꽃’ 등), 대명사, 0(의미역을 갖는 논항이나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형식을 일컬음) 등이 있다. 재귀사가 갖는 특징은 후술한다.

2) 이익섭(1978)에서는 ‘저’, ‘자기’, ‘당신’ 뿐만 아니라 ‘저희’, ‘저희들’과 같은 복수형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우형식(1986)에서도 이어진다. 한편 김일웅(1981)에서는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제’, ‘제자신’, ‘자체’ 등을 상정하기도 했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자기’를 대명사와 명사로, ‘자신’을 명사로 처리하는 반면, 연세한국어사전은 ‘자기’는 대명사, ‘자신’은 명사로 처리하고 있다.

‘自己, 自身’, 베트남어의 ‘*mình, Bản thân*’ 등은 한국어의 ‘자기’의 의미와 분포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1) 아이가 쿨쿨 자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졸게 된다.

(1)은 일본 학습자가 작성한 문장으로, ‘자기=自己, 自分’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만드는 오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의 의미를 직역만으로 가르치기 어려운 어휘로 ‘이, 그, 저’를 들 수 있는데, ‘이, 그, 저’는 각각이 지시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명시하면 되는 반면, ‘자기’는 선행사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문장 내 출현 위치도 언 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장이나 담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sup>4)</sup> 이러한 점에서 재귀사 ‘자기’는 어휘 범주에 속하면서도 의미 번역이나 기술에 그치지 않고 문장이나 담화 내에서의 용법을 기술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어휘 항목 중에서 한국어 교육용 교재에서 문법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목표 항목으로서 다루는 것으로는 ‘이, 그, 저’와 사동사 및 피동사 등이 있다. 그러나 ‘자기’는 의미와 용법이 더욱 복잡해서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목표 항목으로서 선정된 예는 필자가 아는 한 잘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본고에서는 재귀사 ‘자기’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필요한 문법 내용을 기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 2. 학습자 오류의 유형 분석

이 장에서는 재귀사 ‘자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학습자들이 보이는 오류를 제시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sup>5)</sup>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어

4) 일본어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경화(2004)에서도 ‘자기’ 사용에 대한 오류를 ‘문장 영역의 오류’로 분류한 바 있다.

재귀사 교육에 필요한 내용 기술의 항목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다.

- (2) 가. 아이가 쿵쿵 자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졸게 된다. (=1)  
나. 예전에 고등학교 때 사춘기여서 자기의 의견이 많아서 어머니의 말을 잘 듣지 않았다.  
다. 한국 사람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 자기의 모국어니까 식은 죽 먹기라고 생각했다.  
라. 제가 게임 CD를 파는 곳에 가서 자기의 돈으로 게임 기계와 CD를 샀습니다.  
마.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3) 너는 자기가 방 청소와 요리를 다 하니?

(4) 저희 어머니는 부모로서 자기의 승진을 포기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 (5) 가. 수민 씨는 그녀의 방식대로 일했다.  
나. 한스 씨는 그가 그린 그림을 수민 씨한테 보여줬다.  
다. 한스 씨는 택배를 그한테 보내 달라고 말했다.

- (6) 가. 민수 씨는 저한테 시험 잘 봤냐면서 저는 이번에 잘 못 본 것 같다고 했어요.  
나. 수민 씨는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저한테도 한 장 달래요.

(2)는 ‘나’를 써야 할 자리에 ‘자기’를 쓴 오류문이다. 말하는 사람을 가리키므로 1인칭 대명사 ‘나’를 사용하면 될 텐데 학습자들 가운데는 구어

---

5) 본고에서 제시하는 오류문은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5급 이상의 학습자들이 발화하거나 작성한 문장에서 수집한 것이다.

든 문어든 이 자리에 ‘자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는 일본어권 학습자뿐 아니라<sup>6)</sup> 중국, 베트남 학습자들에게서 빈번하고 필리핀, 파키스탄, 이탈리아, 미국 등의 언어권 학습자들에게서도 그 환경에 ‘나’를 써야 할지 ‘자기’를 써야 할지 확실하지 못하는 현상을 본다.<sup>7)</sup>

(2)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자기’가 무엇을 가리킬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달리 말하면 ‘자기’의 선행사의 조건, 그중에서도 인칭 조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점은 (3)에서도 관찰된다. (3)은 2인칭 주어를 다시 가리킬 때 ‘자기’를 쓴 것인데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2)에서 ‘나’를 쓴 학생들조차 (3)과 같은 오류를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기’의 선행사 조건에 대한 정보가 모국어의 간섭을 받는 일부 언어권 학습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 대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정보로서 제공되어야 함

6) 안경화(2004:485-486)에서는 일어에서 ‘自分’을 1인칭, 2인칭, 3인칭 모두에서 쓰기 때문에 일본어권 학습자가 1인칭 대명사를 다시 가리킬 때 ‘자기’를 과도 일반화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의 (2가~다)는 문장에 1인칭 주어가 실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1인칭 대명사를 다시 가리킨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한송화(2013)에서 언급한 대로, ‘자기’는 ‘자신’과 비교하였을 때 보다 구어적인 맥락에서 많이 사용되고, 주어가 흔히 생략되는 구어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1인칭 대명사를 다시 가리킨 경우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7) (2가~마)의 각각의 문장에 빈칸을 만들어 학습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말을 써 보라는 과제를 부여했을 때 일본, 중국, 베트남 학습자들은 다섯 문장에 모두 ‘자기’를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반해 필리핀,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학습자들은 (2가, 나, 라)에는 ‘나’를 썼으나 (2다, 마)는 ‘자기’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 연구가 양적 연구는 아니므로 오류 분석 결과를 수치로써 나타내지는 않으나 적어도 그러한 경향이 관찰된다는 사실만 언급하고자 한다. 연구자가 보기에, 일본, 중국, 베트남 학습자들은 L1 - L2 사이에서 혼란이 있는 것 같고, 필리핀, 이탈리아, 미국, 싱가포르 학습자들은 L2 내에서 혼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할 뿐 더욱 정밀한 대조언어학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을 뜻한다.

(4)는 ‘자기’의 존칭형인 ‘당신’이 쓰여야 할 자리인데 ‘자기’를 쓴 경우로, 문법적인 오류라기보다는 화용적인 오류에 해당한다.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가 5급 이상의 고급 학습자들에게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4)에 ‘당신’을 쓴 예가 하나도 없을 만큼 학습자들이 ‘자기’의 존칭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 숙달도가 낮은 학습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겠으나 높은 숙달도의 학습자의 경우에는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sup>8)</sup> 이러한 점에서 ‘당신’은 한국어 교육에서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 영역에서 한 번쯤은 짚어줄 만한 형식이며, ‘자기’의 존칭형에 대한 정보는 문법 기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자기’의 비칭인 ‘저’는 존칭인 ‘당신’과는 좀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먼저, ‘저’는 일상 대화에서 흔히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흔히 ‘지’라고 발음되어, 일반적인 한국어 모어 화자들조차도 그 표준형이 ‘저’라는 것을 잘 모른다. 또한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에서 존칭형을 상황에 맞게 잘 구사하는 능력은 그 언어의 사회언어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포함될 수 있겠으나 비칭형을 구사하는 능력이 포함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한 점에서 ‘저’는 한국어의 표현 영역 교육에서 다룰 필요는 없으나, 구어에서 ‘당신’보다 사용 빈도가 높으므로 이해 영역에서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결국, 비칭 ‘저’에 대한 기술도 참고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5)는 주어가 3인칭일 때 한 문장에, 또는 내포문에 나오는 동지시어 3인칭 인물을 어떤 형식으로 가리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미국, 이탈

8) ACTFL OPI 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확성(ACCURACY)은 발음이나 문법 형태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용적으로 적합한 언어를 구사하는지 여부도 포함한다. 이러한 지침에 의하면 자신의 어머니를 ‘당신’이라고 가리키지 않고 ‘자기’라고 가리키는 경우는 ADVANCED 이상의 등급에서는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리아 학생들은 ‘자기’ 대신 3인칭 대명사를 써서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든 반면, 일본, 중국, 베트남 학생들은 ‘자기’를 썼다. 이러한 현상은 재귀사의 문장 내 분포와 ‘인칭’ 범주에 대한 언어권별 차이에 따른 것이다.

영어는 단문에서는 주어와 동지시적인 목적어를 가리킬 때 주어와 같은 인칭인 재귀사를 사용한다. 그리고 복문에서는 모문의 주어와 동지시적인 대상이 내포문에 나타날 경우 그 대상은 재귀사가 아닌 대명사로 가리킨다. 즉, 영어는 재귀사가 선행사와 같은 절에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선행사가 절 경계를 넘어서 존재하면 재귀사 대신 인칭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선행사와 같은 절에 있더라도 재귀사는 동사나 전치사의 목적어 위치에만 사용될 수 있을 뿐, 명사구 앞에 관형어 위치에는 사용되지 못한다. 또한 영어는 문법적 범주로서의 ‘인칭’이 있기 때문에 재귀대명사와 인칭대명사가 모두 선행사의 인칭이 무엇인지를 참조한다. 이러한 이유로 (5가, 나, 다)는 모두 영어에서 재귀대명사가 사용될 수 없고 인칭대명사가 사용되는 환경이며<sup>9)</sup> 이러한 사실이 한국어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간섭하여 (5)와 같은 오류문을 만든 것이다. 한편, 이러한 분포와 인칭 면에서 한국어와 차이가 없는, 그래서 선행사와 다른 절에 있어도, 목적어가 아닌 주어나 관형어 위치에 있어도 ‘자기’를 쓸 수 있는 언어권 학습자는 오류를 잘 만들지 않는다.

이상의 사실을 고려할 때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재귀사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 선행사와 재귀사의 거리, 즉 절 경계를 넘어가도 되는지 여부, 둘째, 재귀사의 문장 내 분포, 즉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문장 성분 가운데 무엇으로만 나올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참고적으로 재귀사 대신 인칭대명사를 사용했을 때 한국인이 갖는 직관은 어떠한지도 알려주면 더욱 도움이 될

9) 즉, (5가) Sumin did it her way, (5나) Hans showed Sumin a picture he had painted, (5다) Hans said to send the package to him.

것이다.

마지막으로 (6)은 언어권을 막론하고 학습자들이 가장 잘 틀리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나오는 오류이다.

(7) 가. 민수: 시험 잘 봤어요? 저는 이번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나. 수민: 이 사진 너무 맘에 들어요. 전한테도 한 장 주세요.

(6가)는 원래 민수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면서 ‘저’라고 표현한 것인데(7가), 이를 들은 사람이 제3자에게 민수의 말을 전달하면서 그 ‘저’를 ‘자기’로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저’라고 쓴 것이다. (6나)는 수민의 말 (7나)를 간접화법으로 바꾸면서 직접화법의 ‘저’를 그대로 쓴 경우이다. 이러한 오류는 (8)과 같은 단문 발화를 간접화법으로 옮길 때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8) 가. 민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저를 쳤어요.

나. 민수 씨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전을 쳤대요.

결국, (6)과 (8나)는 문장의 주어가 3인칭일 때 그 문장에서 다시 그 사람을 가리킬 때에 ‘자기’를 사용한다는 용법에 따른 것인데 간접화법은 학습자들이 특히 복잡하다고 여기는 문법이므로 이런 환경에서의 재귀사의 사용을 명시적으로 짚어주면 정확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상에서 학습자들의 오류를 유형별로 분석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상세 기술이 필요한 사항들이 가려졌다. 논의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9) 한국어 재귀사 ‘자기’를 위한 문법 기술에 필요한 사항
  - 가. 선행사의 인칭 조건
  - 나. ‘자기’의 존칭형(참고로 비칭형)
  - 다. 선행사와 ‘자기’의 거리
  - 라. ‘자기’의 문장 내 분포
  - 마. ‘자기’와 인칭대명사의 차이
  - 바. 특별히 잘 틀리는 경우: 간접화법

### 3. 한국어 재귀사의 문법적·기능적 특징

재귀사의 특징에 대해서 일찍부터 구조적인 접근과 기능적인 접근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구조적인 접근의 쟁점은 (1) 재귀사의 선행사 조건, 즉 인칭, 유정성, 주어 여부 등과 (2) 분포, 즉 재귀사와 선행사의 문장 내 위치와 거리 등이다. 한편, 기능적인 접근의 쟁점은 재귀사가 가진 지시적인 특징에 대한 것으로, 재귀사는 다른 지시적 표현과는 달리 선행사에 ‘시점(empathy)’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인 논의이다.(Kuno 1972; 1975; 1987)

이 장에서는 ‘자기’의 문법적·기능적 특징을 (9가, 다, 라, 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어 재귀사 교육을 위한 문법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3.1. 선행사의 조건

선행사의 조건은 구체적으로 인칭, 유정성, 주어 여부로 집약되는데 차례로 살펴보도록 한다.

인칭 조건은 ‘자기’의 선행사가 3인칭만 가능한가, 아니면 1, 2인칭도 가능한가로 집약된다. 문법 범주로서의 인칭(人稱, person)은 대화 참여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1, 2인칭은 직접 대화 참여자이고 3인칭은 대화의

대상이 되는 제3자를 말한다. 이정민(1973), 이익섭(1978), 김정아(1984) 등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3인칭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10) 가. 나는 가끔 \*제 앞날이 걱정돼.

나. 너는 \*제 앞날을 점칠 수 있니? (이익섭 1978)

그러나 최현배(1975), 성광수(1981, 1984), 임홍빈(1987)에서는 인칭 제약이 없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는데, 최현배(1975) 및 성광수(1981, 1984)에서는 인칭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재귀대명사를 ‘통칭대명사’로 불렀다. 임홍빈(1987)에서는 ‘자기’의 선행사로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대상은 3인칭 대상이지만, 1, 2인칭도 올 수 있는데, 그것은 타자 시점(他者視點)을 도입할 때라고 주장했다. 즉,

(11) 가. 나는 그때 전혀 자기 정신이 아니었다.

나. 아버님은 내가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숙맥이라는 것이 걱정되신다.

다. 너는 지금 도대체 자기 정신이냐? (임홍빈 1987)

(11가)는 ‘지금의 나’에 의해 관찰되는 제3자적인 ‘그때의 나’, (11나)는 ‘아버님’에 의해 관찰되는 ‘나’, (11다)는 ‘평소의 너’와 분리되는 ‘지금의 너’가 선행사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의미론적 3인칭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타자 시점을 도입하여 의미론적 3인칭화를 겪는 1, 2인칭에 한하여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11)의 ‘자기’는 우리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재귀사적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따져봐야 한다. 현재 우리는 ‘고정적인 지시물을 가지지 못하고 맥락에 의존하여 지시를 확보하는’ 형식의 하나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11)의 ‘자기’는 ‘자기애’, ‘자기만족’에서처럼 어떤 사람을 구

체적으로 집어서 다시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 자신’이라는 고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그렇다면 선행 담화 내에 선행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이유는 없으며 (11)에서 ‘자기’가 꼭 앞서 나온 ‘나’, ‘너’를 다시 가리킨다고 해석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sup>11)</sup>

만약 (11)에서 ‘자기’가 ‘나’, ‘너’를 가리킨 것이라면 왜 외국인 학습자들이 만든 (2)가 한국인 직관에 맞지 않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11)이 타자 시점을 도입한 것이라면 (2)에는 타자 시점이 도입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서 본고에서는 재귀사 ‘자기’가 다시 가리키는 선행사는 3인칭으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sup>12)</sup>

다음으로 유정성 조건에 대해서는 선행사의 어휘적 성격이 [+animate] 인가, [+human]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는데,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쓰임이나 사람은 아니지만 정신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대상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도 문법 기술에 참고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sup>13)</sup>

- 
- 10)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은 ‘자기’를 대명사와 명사로 처리하고 후자를 ‘그 사람 자신’이라고 뜻풀이하고 있다. 연세한국어사전에는 ‘자기’를 대명사로만 처리하고 있는데, ‘자기’의 품사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는 이 논문에서 다루지 않으나, 적어도 ‘자기만족’이나 ‘제정신’과 같은 예처럼 ‘자기’가 가리키는 대상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대상을 다시 가리킨다고 보아야 하는 필연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 11) 이러한 직관은 (11가, 다)의 ‘자기 정신’을 ‘제정신’으로 바꾸어 ‘나는 그때 전혀 제정신이 아니었다.’, ‘너는 지금 도대체 제정신이니?’라고 해 보면 더 분명해진다. ‘제정신’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자기 본래의 바른 정신’이란 뜻의 명사로 등재되어 있다.
- 12) ‘나’, ‘너’는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화 장면에 존재하는 대상들이다.
- 1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가)처럼 관형어 자리에 오는 것보다 (나)처럼 주어 자리에 오는 것이 적법성 여부에서 직관차가 많다. (나)는 직관에 따라서는 강아지를 인간처럼 대하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는 ‘자기’가 기

마지막으로 주어 조건은 재귀사의 선행사가 주어인지 아니면 비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한 것이다. 국어학계에서는 재귀사의 선행사가 반드시 주어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나<sup>14)</sup> 한송화(2013:289, 각주 14)에서는 말뭉치 검색 결과 주어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비주어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의 실제 언어 생활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므로 본고에서 적극 수용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는 다음의 경우를 참고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2) 가. 앤디는 한스에게 자기<sub>ij</sub> 방에서 좀 쉬라고 했다.  
 나. 앤디는 아이를 자기<sub>ij</sub> 자리에 앉혔다.

(12)에서 ‘자기’가 주어인 ‘앤디’뿐 아니라 간접 목적어인 ‘한스’나 직접 목적어인 ‘아이’를 가리킬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인의 직관이기 때문이다.<sup>15)</sup> 물론, 외국인 학습자가 (12)와 같은 문장을 생산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환경에서 ‘자기 방’, ‘자기 자리’가 반드시 ‘앤디’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자기’의 선행사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본적으로 의식과 사고의 주체를 지시하기 때문이다.

- (가)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고 빙빙 돈다.  
 (나) 강아지가 자기가 좋아하는 주인을 바라봤다.
- 14) 이익섭(1978), 김정대(1981), 양동휘(1986) 등에서는 주어만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나 이정민(1973)에서는 ‘주어’와 ‘주제’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김화춘(1976)에서는 여러 문장 성분이 가능한데 ‘주제>주어>직접 목적어>간접 목적어’ 등의 선호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임흥빈 1987:135). 여러 성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김정아(1984), 임흥빈(1987)에서도 보이는데, 김정아(1984)에서는 ‘시점’을 받을 수 있을 때 재귀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임흥빈(1987)에서는 ‘경험주’, 심리적 주어로 상정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 15) 이러한 직관이 가능한 경우는 ‘자기’가 관형어로 기능할 때인데, 왜 ‘자기’가 관형어로 사용될 때에는 비주어와도 동지시되는지는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13) ‘자기’의 선행사 조건

‘자기’의 선행사는 기본적으로 3인칭, 인간, 주어이다. 즉, 직접 대화 참여자가 아닌 제3자인 사람이어야 하며 문장의 주어여야 한다.

(단,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람처럼 사고와 인식의 주체가 된다고 여겨질 때는 가능하다. 또한 제한된 환경에서는 주어가 아닌 대상도 가능하다.)

### 3.2. 선행사와 ‘자기’의 거리 및 ‘자기’의 문장 내 분포

선행사와 ‘자기’의 거리는 선행사와 재귀사가 같은 절에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선행사가 재귀사가 있는 절의 경계 밖에 있어도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선행사와 ‘자기’의 거리는 ‘자기’의 문장 내 분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어는 ‘자기’가 문장 안에서 동사의 목적어(14가), 관형어(14나) 등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어 자리(14다, 라)에도 나올 수 있다. 한국어의 ‘자기’가 주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은 곧 선행사가 같은 절 안에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4라) ‘자기’가 주어 이외에 자리에 있을 때에도 선행사가 절 경계를 넘을 수 있다.(14마)

(14) 가. 민수는 회장 선거에서 자기를 찍었다.

나. 민수는 자기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다. 민수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

라. 민수는 [자기가 어렸을] 때 사진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마. 민수는 [[자기한테 제일 소중한] 사람은 엄마라고] 했다.

구어에서는 심지어 ‘자기’의 선행사가 한 사람의 발화를 넘어 상대방이 발화한 문장에 있을 수도 있고(15가) 아예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15나).<sup>16)</sup>

(15) 가. 철수: 민수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니?

수민: 아니,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왔어.

나. [상대방에게 책망하는 말을 들은 후 혼잣말]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왜 나만 잘못이 있다는 거야?

이렇듯, 한국어는 선행사와 재귀사 거리가 동일한 절 안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재귀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등 다양한 위치에 분포할 수 있다.

### 3.3. ‘자기’와 인칭대명사의 차이

2장의 (5)에서는 영어권 화자들이 모국어의 간섭으로 ‘자기’ 대신에 ‘그’, ‘그녀’ 같은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오류의 예를 제시하였는데, 편 의상 (16)으로 다시 가져와 논의하도록 한다.

(16=5) 가. 수민 씨는 그녀의 방식대로 일했다.

나. 한스 씨는 그가 그린 그림을 수민 씨한테 보여줬다.

다. 한스 씨는 택배를 그한테 보내 달라고 말했다.

한국인 직관에 (16)은 자연스러운 일상 발화라고 하기는 어렵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그’, ‘그녀’는 20세기에 들어서 외국어 번역의 영향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대명사이며, 현재까지도 문학 작품, 노래 가사 등 문어적인 쓰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16)을 문어적으로 바꾸어 ‘자기’와 ‘그, 그녀’의 직관상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16) 한송화(2013:292)에서는 ‘구어에서 ‘자기’는 ‘자기’와 동일 지시되는 인물을 맥락 상 화청자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 (16') 가. 수민 씨는 그녀<sub>i</sub>/자기<sub>i</sub>의 방식대로 일했다.  
 나. 한스 씨는 그녀<sub>i</sub>/자기<sub>i</sub>가 그린 그림을 미나 씨에게 보여주었다.  
 다. 한스 씨는 택배를 그녀<sub>i</sub>/자기<sub>i</sub>에게 보내 달라고 말했다.

(16') 에 따르면 ‘자기’는 ‘수민’, ‘한스’와 동지시적으로만 해석되나 ‘그녀’, ‘그’는 중의적이어서 그 이외의 인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 (16' 가)에서 ‘그녀’가 ‘수민’ 이외의 사람을 가리킬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방식대로 일한다는 것이 의미적으로 자연스럽지 않으므로 배제되기 때문이다. (16' 나, 다)에서 ‘그’가 ‘한스’와 동지시적으로 해석되더라도 ‘자기’가 사용되었을 때와는 다른 직관을 주는데, 그것은 이들 문장이 누구를 중심으로 기술되었는지가 다르다는 것이다. 즉, (16' 나)에서 ‘그’가 사용되었을 때에 ‘한스가 미나에게 그림을 보여준’ 사건은 그 사건을 기술하는 사람의 눈으로 관찰되고 있다. 반면 ‘자기’가 사용되었을 때에는 이 사건은 한스의 눈으로 관찰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16' 나, 다)에서 ‘자기’와 인칭대명사는 그 문장을 기술하는 ‘시점’(눈자에 따라 ‘카메라의 앵글’, ‘초점’, ‘관점’, ‘감정 이입’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한다.

정리하자면, 한국어에서 문장 앞에 나온 3인칭 인물을 다시 가리킬 때는 재귀사 ‘자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문어에서는 그 자리에 ‘그’나 ‘그녀’ 같은 인칭대명사를 사용하기도 하나 문장을 기술하는 시점이 재귀사를 사용할 때와는 다르다. 이러한 정보는 재귀사와 인칭대명사의 분포가 상보적인 언어(대표적으로 영어)가 모국어인 학습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 4. 한국어 재귀사 교육을 위한 내용 기술

이 장에서는 2~3장에서 논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귀사 ‘자기’의 교육을 위한 문법의 내용을 기술해 보고자 한다. 교육 내용을 기술할 때에는

한국인의 자연스러운 일상 언어 생활을 적극 반영하되, 일반적인 용법과 참고적인 용법을 가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들의 오류를 반영하여 기술에 꼭 필요한 내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기술의 항목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 국립국어원(2013),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2단계 사업 보고서>, 김성희 외(2015), <서강한국어 4A 문법 단어 참고서> 이 세 종의 기술 항목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한다. 국립국어원(2005)는 문법 항목 사전의 대표로서, 국립국어원(2013)은 전문적인 문법 내용 개발 연구 보고서로서, 김성희 외(2015)는 최근에 발간된 한국어 교육용 문법 참고서의 대표로서 선정한 것이다.

<표 1> 문법 기술서 3종의 기술 항목 비교

국립국어원(2005)	국립국어원(2013)	김성희 외(2015)
1. 표제어	1. 표제어	1. 표제어
2. 주요 용법	2. 의미 및 용법, 예문	2. 대표적 예
3. 분류	3. 도입	3. 의미
4. 관련어	4. 형태 정보	4. 용법(결합 정보, 즉, 형태 및 문장구성 정보, 제약)
5. 형태 정보	5. 문장 구성 정보	5. 예
6. 가표제어	6. 제약 정보	6. 노트(주의 사항)
7. 용법	7. 확장	7. 보너스
8. 결합 정보	8. 유사 문법	
9. 보충 심화		

3종의 책은 모두 각각의 목적과 주 독자를 반영하여 항목 선정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sup>17)</sup>, 의미와 용법, 결합 정보(형태론적, 통사론적),

17) 국립국어원(2005)는 학습자와 교수자를 위한 용법 사전, 국립국어원(2013)은 1~3년 경력의 초보 한국어 교사를 위한 참고서이자 지침서, 김성희 외(2015)는 600시간 이상의 중급 단계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자습용 참고서이다.



제약, 심화·부가 정보를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유사 문법 비교는 국립국어원(2013)에서만 별도 항목으로 잡혀 있으나 나머지 두 문법 기술서에도 다루고 있으므로 공통 기술 항목으로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도 ‘자기’의 기술 항목을 세 문법 기술서의 다섯 가지 공통 기술 항목으로 선정하여 1) 의미와 용법, 2) 결합 정보, 3) 제약, 4) 심화·부가 정보, 5) 유사 문법을 기술하면 무리가 없다고 본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자기’의 문법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sup>18)</sup>

### 한국어 재귀사 ‘자기’의 문법 내용

#### 1. 의미와 용법

‘자기’는 앞에서 말한 사람을 다시 가리켜 말할 때 쓴다.

예) 수민 씨는 회사 동료들에게 자기가 만든 케이크를 선물했다. (자기 ⇨ 수민)

#### 2. 결합 정보

1) ‘자기’는 명사나 대명사처럼 뒤에 조사가 결합할 수 있다.

예) 자기가, 자기를, 자기한테, 자기에게, 자기보다, 자기의...

2) ‘자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다양한 위치에 나올 수 있다.

예) ① 한스 씨는 자기를 잘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한다. (자기 ⇨ 한스)

② 수민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 쉬었다. (자기 ⇨ 수민)

18) 다섯 가지 항목 가운데 유사 문법 비교는 ‘자기’와 ‘자신’에 대한 것이다. ‘자신’은 ‘자기’와 의미 및 기능이 유사하여 혼란을 주는 항목으로 ‘자기’의 문법을 기술할 때 꼭 포함하여야 하나, 본고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그 이유는 1) ‘자기’의 의미와 기능 자체도 분명히 기술되지 않았다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목표이고 2) 학습자들이 ‘자기’와 ‘자신’을 혼동하는 경우보다는 ‘자기’를 쓰지 말아야 할 환경에 쓰거나 또는 그 역인 경우를 더 많이 관찰하며, 3) 한송화(2013)에서 말뭉치 분석을 통하여 ‘자기’와 ‘자신’의 변별점을 정밀하게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자기’의 문법 기술의 다섯 번째 항목인 유사 문법에서는 한송화(2013)의 연구 성과에 전적으로 의지하고자 한다.

3)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은 문장의 주어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 예 ① 민수 씨는 한스 씨에게 자기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기 ⇨ 민수)  
② 한스 씨는 아이에게 자기가 사 온 옷을 입혔다. (자기 ⇨ 한스)

4)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문장에 있지 않아도 되며, 다른 사람이 말한 사람일 수도 있다. 또, 언어적으로 표현되지 않았으나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도 가리킬 수 있다.

- 예 ① 철수: 민수가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니?  
한스: 아니. 자기가 직접 가지고 왔어. (자기 ⇨ 민수)  
② [상대방에게 책망하는 말을 들은 후 혼잣말로]  
자기도 잘못했으면서 왜 나만 잘못이 있다는 거야? (자기 ⇨ 상대방)

### 3. 제약

1) ‘자기’는 화자나 청자를 다시 가리킬 때에는 쓰지 못한다. 화자나 청자를 다시 가리킬 때에는 각각 ‘나’, ‘너’를 쓴다.

- 예 ① 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다. (x)  
→내  
② 너는 자기가 방을 다 청소하니? (x)  
→네

2) 다른 사람이 한 말을 간접화법으로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본인을 가리켜 말할 때에는 ‘나’, ‘저’ 대신 ‘자기’를 쓴다.

- 예 ① [직접 화법] 민수: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쳤어요.  
[간접 화법] 민수 씨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쳤대요. (x)  
→자기  
② [직접 화법] 민수: 시험 잘 봤어요? 저는 이번에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간접 화법] 민수 씨가 시험 잘 봤으면서 저는 이번에는 잘 못 본 것 같대요. (x)  
→자기

### 4. 심화·부가 정보

1) 가리키려는 사람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가 화자보다 높지 않으면 ‘자기’, 높으면 ‘당신’을 쓴다.

- 예 할아버지는 당신께서 직접 집을 지으셨다. (당신 ⇨ 할아버지)

- 2) 구어에서 화자보다 나이나 지위가 높지 않은 사람을 낮추어서 가리킬 때에 ‘자기’ 대신 ‘저’를 쓴다. ‘저’는 흔히 ‘지’라고 발음하기도 한다.

예) 내 동생은 제가 제일 예쁜 줄 안다. (저 ⇨ 동생)

- 3)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은 보통 문장의 주어이나 다음과 같이 주어가 아닌 사람도 가리키는 경우가 있다.

예) ① 민수는 한스에게 자기 방에서 좀 쉬라고 했다. (자기 ⇨ 민수, 한스)

② 한스는 아이를 자기 자리에 앉혔다. (자기 ⇨ 한스, 아이)

- 4) 문어적으로 ‘자기’ 대신 ‘그’, ‘그녀’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자기’를 쓰면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을 중심으로 말하는 느낌이 있으나 ‘그’, ‘그녀’는 그런 느낌이 없다.

예) ① 한스 씨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수민 씨에게 보여주었다.

(자기 ⇨ 한스. 한스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말하는 느낌이 있음.)

② 한스 씨는 그가 그린 그림을 수민 씨에게 보여주었다.

(그 ⇨ 한스. 한스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말하는 느낌이 없음.)

- 5) ‘자기’는 사람을 가리킬 때 쓰나, 마음을 가졌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도 사용하기도 한다.

예) 우리 강아지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강충강충 똥다. (자기 ⇨ 강아지)

### 5. 유사 문법: ‘자기’와 ‘자신’<sup>19)</sup>

- 1) ‘자기’는 구어에서 비격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자신’은 문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 2) ‘자기’가 가리키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문장에 있지 않아도 되고 또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되지만 ‘자신’이 가리키는 사람은 보통 ‘자신’과 같은 문장에 있다.
- 3) ‘자기’는 화자와 청자를 가리키지 못하지만 ‘자신’은 그런 제약이 없다.

19)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은 한송화(2013:284~298)의 연구 결과 가운데 일부를 요약한 것이다. (각주 18 참조)

## 5. 결론

이상에서 우리는 한국어 재귀사 ‘자기’를 대상으로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학습자의 오류 분석과 국어학 및 한국어교육학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기술하고자 하였다. 학습자 오류를 분석하면서 문법 기술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사항은 (1) 선행사의 인칭 조건, (2) ‘자기’의 존칭형, (3) 선행사와 ‘자기’의 거리, (4) ‘자기’의 문장 내 분포, (5) ‘자기’와 인칭대명사의 차이, (6) 간접화법에서의 주의점이었다. 여섯 가지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자기’의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기술함에 있어서 기술의 항목을 ‘의미와 용법’, ‘결합 정보’, ‘제약’, ‘심화·부가 정보’, ‘유사 문법’으로 나누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문법 교육의 진행 순서에 맞추어 ‘자기’의 교육 내용을 교수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으리라 판단한다.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많은 언어권 학습자의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연구자가 일어와 중국어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지식만을,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어의 다른 언어 간의 대조언어학적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부족함이 앞으로 한국어의 ‘자기’와 여러 외국어의 재귀사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더 정밀하게 분석되고 기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논저]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2, 서울: 커뮤니케이션 북스.  
김일웅(1981), 우리말 대용어 연구, 부산대 박사 논문.  
김정대(1981),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에 관한 연구, 경남대 석사 논문.

- 김정아(1984), 15세기 국어의 대명사에 관한 연구, 국어연구 62, 국어연구회.
- 김화춘(1976), *The Theory of Anaphora in Korean Syntax*, PhD dissertation, MIT.
- 성광수(1981), 국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재고, <한글> 172호, 한글학회. 29쪽~56쪽.
- 성광수(1984), 통칭대명사의 결속관계, 목천유창균박사환갑기념논문집,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309쪽~322쪽.
- 양동휘(1986), 한국어의 대용사론, <국어학> 15호, 국어학회. 41쪽~162쪽.
- 안경화(2004) 日本語圏 한국어 학습자의 言語間 轉移 誤謬 연구, <어문연구> 123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471쪽~492쪽.
- 우형식(1986), 국어 대용어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 논문.
- 이익섭(1978), 한국어의 재귀대명사에 대하여, <인문논총> 2-2호,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3쪽~25쪽.
- 이정민(1973), *Abstract Syntax ana Korean with Reference to English*, PhD. dissertation, Indiana University.
- 임홍빈(1987), 국어 재귀사 연구, 서울: 신구문화사.
- 최현배(1975),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
- 한송희(2013), 재귀대명사 “자기”의 의미와 기능 연구 -“자기”와 “자신”의 말뭉치 용례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8호,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79쪽~303쪽.
- Kuno, S.(1972), Pronominalization, reflexivization, and direct discourse, *Linguistic Inquiry* 3:2, MIT Press. pp.161~195.
- Kuno, S.(1975), Three perspectives in the Functional Approach to Syntax, in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Functionalism*, Chicago Linguistic Society. pp.276-336.
- Kuno, S.(1987), *Functional Syntax*, Chicago University Press.

[보고서]

- 국립국어원(2013), 한국어 교육 문법·표현 내용 개발 연구 2단계 사업 보고서. (연구책임자 양명희).

[교재]

- 김성희, 오경숙, 최영미, 윤혜숙, 최연재, 정예랜, 정영미, 구은미 (2015), 서강한국어 4A 문법 단어 참고서,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출판부.

[사전]

- 국립국어원 편(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2006), 연세 한국어사전, 두산동아.

152 이증언어학 제65호(2016)

오경숙(Oh Kyoungsook)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04107 서울 마포구 백범로 35 아루페관 710호

전화번호: 02-713-7891

전자우편: [trieyes@sogang.ac.kr](mailto:trieyes@sogang.ac.kr)

접수일자: 2016년 10월 31일

심사(수정)일자: 2016년 11월 20일

게재확정: 2016년 12월 15일